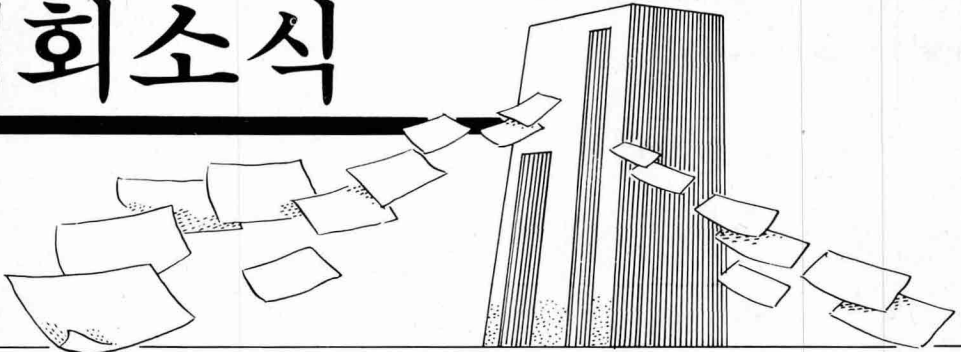


협회소식



전남도협의이전및 광주지부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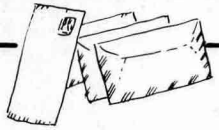
지난 7일 전남도협의회의에서는 장소이전및 광주지부 창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양돈인및 관계기관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정도 전남협의회장은 “불황인 지금 스스로 타개하고자 모인 이자리에서 성급한 단안보다는 차분히 풀어나가고 내년에도 양돈가격의 하락을 대비 미리 합심하여 조절하자”고한후 이희주광주지부장은 정부시책에 적극호응하여 서로 협회와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로서 기틀을 다져나가고 지부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이운형 전남도 축정과장은 합심전력하여 과잉생산을 막고 협회와 함께 협조해가며 산적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한후 곧이어 본회 한백용전무의 인삿말과 양돈전반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날 광주축협및 도축정과의 회관건립기금등 많은 사무용품이 전달되어졌다.

모니터 통신



원주지역 안정미 모니터

◎ 양돈협회원주지부에서는 송순석 지부장을 비롯한 23명의 회원이 모인자리에서 모돈감축에 관한사항을 가지고 월례회의가 진행되었다

◎ 11월25일~11월29일 거래 자돈 최고가격은 23,000원이고 최저 15,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11월30일~12월 4 일 자돈 최고가격은 20,000원이고 최저 8,000원으로 거래되었다. 12월 4 일 현재 600g정육 소비자 가격은 1,700원~1,500원으로 거래되었다.

대전지역 배월순모니터

◎ 지난 11월 15일 화요일 15시에 보은속리산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충북양돈협회 주최로 제 2 차 충남북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 충청남도 도청에서 대전지부 양돈협회로 11월10일자 공문(축정 1162~1120)을 발송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돼지 생산 과잉으로 생돈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되어 양돈경영의 안정을 도모코져 모돈 감축을 추진하바 있으나 후보 모돈의 대체사육으로 증가되고 있어 머지않아 돼지 가격이 폭락될 것으로 예견되니 철저히 제도 할 것.

가) 시장, 군수 책임하에 관내 축산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전기업 농가를 중심으로 돼지의 생산조절 대책을 강구하되 '8 2. 12월말현재 사육수준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것.

나) 금후 도축되는 돼지의 암, 수 비율을 60 : 40으로 철저히 유지하고 출하두수 10두당 2두의 비율로 모돈이 출하되도록 적극 유도 할것이며,

다) 별첨 모돈의 규모별 감축 목표에 따라 '83 11. 1~12, 30까지 2 개월간 할당된 모돈을 감축토록 조치할것,

라) 관내 100두 이상의 전기업 양돈농가에 대하여 출하시기가 포함된 연간 생산계획을 강구하고 모돈을 과감히 도태토록 유도하여 사육두수가 9월 수준을초과하지 않도록 제도하고,

마) 기존 비닐 축사 및 종돈장 이전등을 제외하고는 돼지 사육두수 증가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돈사 신, 증축(우사, 제사의 돈사 개조 이용 포함)을 최대한 억제할것.

바) 농촌진흥원장은 별도 배부되는 모돈감축 전단을 농촌 지도사로 하여금 전 기업 농가를 중심으로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함은 물론 홍보 매개체를 통하여 돼지 생산조절 및 모돈 감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것.

사) 축협 도지부장은 별도 배부되는 관측정보지와 모돈 감축 전단을 지역 축협으로 하여금 전 농가를 중심으로 제도하시기 바람.

◎ 12월 1 일자 대전일보 11면과 KBS 아침방송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뉴스를 실었다.

수입최고기와 소비자 가격이 1일부터 6백그당 한근에 3천 5백원에서 3백원이 올랐다. 충남도는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최고기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입최고기 가격을 한근에 3천 2

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사육중인 돼지숫자가 적정선인 3백만마리보다 훨씬많은 4백만마리를 넘게돼 금년 상반기에 심각한 불황이 예상되고 있다.

◎ 1983. 11. 18 대전에서 50~54두의 돼지에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병명은 피사성 장염, 및 살모넬라증이라고 한다.

◎ 충남도 협의회에서 충남도 축정제로 11월 29일 우수중돈분양의뢰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양돈협회 충남도 협의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중돈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불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불황이 지속되는 이때, 중돈교체 및 혈통갱신을 하여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뜻에서 본 협의회에 우수중돈을 다수 분양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 협의회도 앞으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홍성지역 이경옥모니터

◎ 농수산부는 돼지불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연말까지 어미돼지 10만 5천마리를 줄이고 전업기업양돈가의 새끼돼지 판매를 강력히 억제할 계획이다.

또 사육 돼지의 두수증가를 최대한 막기 위해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돼지막의 신축이나 증축을 최대한 억제 하기로 했다. 9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현재 사육중인 돼지는 모두 3백72만 1천마리며 이 가운데 어미돼지는 59만 5천마리로 작년말에 비해 전체돼지는 70%, 어미돼지는 35%씩 급증, 이추세를 방지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사육두수가 엄청나게 늘어 돼지불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어미돼지 숫자 줄이기에 착수 이달부터 연말까지 10만 5천마리의 어미돼지를 줄여 적정선인 49만마리로 감축할 계획이며 주로 전업기업 양돈가의 감축을 유도해 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양돈협회가 앞장서서 전업기업양돈가의 새끼돼지 분양을 자율적으로 억제하도록 요청했다.

그런데 올들어 수입쇠고기의 가격인상과 보신탕소비 감소 소비촉진홍보강화로 돼지고기소비를 일시적으로 급증 연간 소비량이 당초예상 26만 8천톤에서 29만 5천톤으로 늘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일시적 소비증가와 가격상승이 돼지 사육두수의 급증을 야기, 불황의 큰 원인이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가격은 지난 5일 9만 5천원 (전국 평균)으로 작년말 16만 2천원과 지난 6월말 13만 5천원에 비해 26%와 17%씩 각각 내렸으며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한우 젖소, 돼지값등 폭락 ◎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이후 계속 내림세를 보이던 소·돼지 가축시세가 11월 1일 사료값 인상이후 부터는 더 큰폭으로 떨어져 돼지의 경우는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이때문에 사육농가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내놓고 있으나 수요가 절대량에 미치지 못해 가격은 계속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추석전에 생체 6백g당 8백원대를 상회하던 어미돼지가 현재는 4백~5백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새끼값도 폭락, 4만원 하던것이 1만 5천원에도 섰뜻사가는 사람이 없을지경이다.

이모씨는 지난 7월경 새끼돼지를 마리당 4만원선에 구입, 사육했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 마리당 사료값만 6만 5천원들어 최소한 11만원은 받아야 되나 7만 5천원에도 매매가 잘안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러한 가축시세의 폭락현상은 사료값인 파 돼지과잉사육 때문에 앞으로 돼지와 한우의 경우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료값은 계속 오름세에 있으나 농촌의 소·돼지값은 계속떨어지고있어 유축농가들이 큰 타격을 겪고 있다.

11월 7일 서산시중의 돼지거래가격은 생돈 kg 당 6백50원하던 것이 6백2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매기는 한산하다. 이같이 농촌 저축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농촌에서 영농비를 얻어쓰고 상환기가 되자 손쉽게 처리하려고 홍수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돼지고기 포장육 늘려 ◎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 16만마리(8천톤)를 매입, 비축하고 쇠고기 포장육의 30%이상을 돼지고기포장육으로 대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11월29일 농수산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사육두수를 9월말 수준으로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가격이 계속 생산비 이하로 밀돌고 있어 산지돼지가격이 농가경영비 이하로 떨어질경우 우선 16만마리를 매입, 비축기로 했다.

현재 마리당(90kg) 산지 돼지가격은 8만8천원으로 생산비보다 2천원이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농수산부는 농가의 자기노임을 제외한 경영비(8만4천원) 이하로 값이 떨어질 때 1차로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와함께 수입쇠고기 포장육의 30%이상을 돼지고기 포장육으로 대체토록 포장육공장에 긴급 지시했다.

또 육가공품 공장이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요리강습회등을 통한 소비 촉진운

동도 계속 퍼기로 했다.

연초 마리당 16만원하던 돼지고기가격은 6월월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 6월 13만5천원 9월 12만1천원, 10월 10만5천원으로 계속하락, 최근에는 8만8천원까지 떨어진다.

대구지역 김노식모니터

◎ 포장돈육의 의무공급량 늘려 연말육류가격 안정에 차질 예상

대구매일신문 12월 1일자에 의하면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대구시가 일반 지육보다 값이 비싸고 질이 뒤지는 포장돈육의 의무공급량을 늘리는 바람에 소비자 구매가격만 올린 가운데 수입쇠고기 판매가격도 1일부터 600g당 3백원 더 인상, 연말육류 가격안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11월 28일부터 대구 시내 육가공업체에 대해 수입쇠고기 포장육에 포장돈육 30%를 끼워 육류업소에 병행판매토록 한 데 이어 1일부터 현행 600g당 3천2백 원으로 조정된 수입쇠고기 포장돈육 판매가격을 3천5백원으로 인상조정 했다.

대구시는 돼지고기 판매촉진을 위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포장돈육의 고시가가 일반지육보다 6백g당 50원이 더 비싼 데다 질마저 떨어져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점차 외면돼 소비촉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입쇠고기 포장육의 방출량도 1일 43두에서 38두로 줄인 데 이어 값마저 인상, 자칫 연말육류수급 및 가격안정에 혼선만 빚게할 우려가 크다고 식육업소측은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농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 사료값 싸움에 닭 떼죽음

경영난으로 도산한 양계업자가 자취를 감추

자 채권자인 사료회사가 양계장을 가압류, 먹이를 주지 않는 바람에 수천수의 닭이 폐죽음을 당하고 있다. 경북 달성군 논공면 삼리동 속칭(식실)앞 삼리양계장 주인 이경생(34세)는 지난 6월부터 8월초순까지 주식회사 동서사료(경남의창) 대구 출장소와 거래를 해오던 중 닭 값폭락등 적자운영으로 부도, 19일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추자 8 백만원의 사료 대금을 받지 못한 동서사료가 1 만여수의 닭과 양계장을 가압류했다. 사료회사가 가압류하면서 사료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일만여수의 닭은 하루 10여 마리씩 굶어죽기 시작 3 일째부터는 하루 천여마리가 죽어 그동안 5,000~6,000여수가 폐죽음을 했다는 것이다.

이 통에 양계장 인부들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양계장 북쪽 밑바닥에 구덩이를 파놓고 야간을 이용, 묻고 있으나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업자간의 이해가 얽힌 채권채무 관계로 에매한 닭이 폐죽음을 당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당국 개입으로 전염병을 예방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곳 인부 김모씨(35세)에 따르면 현재까지 8 리어카분 정도를 매장해 약 5,000~6,000여수의 닭이 죽은것 같으며 수일간에 1 만여수 모두가 죽게 될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서사료 대구 출장소 관계자는 10여일 전 이씨를 만나 닭을 사육해가면서 경매처분해 빛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도망하는 바람에 가압류하게 된것이라고 말하고 이씨가 타협이 안된 상태에선 사료를 공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대구시는 11월29일부터 대구 시내 50두 미만의 영세농가의 1만 4천여마리의 돼지를 대상으로 시 지정 인근 가축병원에서 무료로 돈 콜

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12월 17일 까지다. (50두 이상은 자가예방토록 지시 하였음)

◎ 경북 양돈업 협동조합의 돼지사육 관리교육(세미나) 개최

경북 양돈업 협동조합은 1983년 11월21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10:00~15:00) 서울대성미생물연구소 강병직고문을 초청하여 대구 경북 지역 양돈인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용)

1. 양돈경기와 전망.
2. 질병예방 대책
3. 돼지사육관리

◎ 대구지역의 자돈가격이 11월11일~20일 평균 최고20,000원 최저 10,000원이고 정육600g 당 소비자 가격이 1,600원~1,800원 이었으며 11월21일~11월30일평균 자돈가격이 최고25,000원~최저 10,000원이고 소비자가격 정육 600g 당 1,600원~1,800원이었다.

제주지역 이정순모니터

돼지사육두수가 늘어 또다시 파동의 우려를 보이고 있는가운데 타시도 돼지까지 다량입하되고 있어 처리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2일 제주시 사회산업과에 따르면 11월들어 서만도 모두 3 백여마리의 돼지가 다른 지방에서 들어와 가뜩이나 과잉생산으로 판로망 개척에 허덕이고 있는 도내 양축농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당국이 밝힌 현재 제주시내사육돼지는 4천 5백여마리나 되고 있는 가하면 도내 전체 사육돼지는 적정수준인 5만마리보다 5천마리가 웃도는 5만 5천여마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량 사육되어 파동을 겪고 있는데도 다른 지방 비육돈까지 입하되는 바람에 판로난은 물론 값하락우려마저 나타내고 있는데 시관계자는 kg당 생체값이 도내 산이 1,400 원인데 비해 다른 지방의 것은 1,200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같은 요인이 다른지방의 돼지를 사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타도산 생돈의 반입제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적정사육과 사육비의 절감으로 생산비를 줄이려는 양축농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당국은 11월 14일부터 11월말까지 타도산 반입돼지에 대한 방역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생돈반입을 제한키로 했다.

가을

김 영 순

풀 벌레
긴 울음소리
마음을 찌르누

외줄기
쓰라리게
종 울리니

목 메이고
파리하여
지난일을 생각하노라

또 우노라
바람처럼 부는대로

나는 가노라
낙엽처럼
이곳 저곳

헤메다닐
바람과 함께……

